

무토 마사토시(武藤正敏) 주한 일본대사 내정



- 일본정부는 7일,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 후임으로 무토 마사토시 쿠웨이트 대사(61)을 내정
 - *15일 각료회의에서 결정, 8월말 부임 예정
- 무토대사는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(1991~93년)이나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많음
 - *무토 대사는 외국 근무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3번 근무한 경험이 있고,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Korean school로 유명
 - *도쿄 출신으로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”, 요코하마국립대학卒, 하버드대학원卒
- 일본은 무토대사의 기용으로 천안함 사태에 적극 대응 등 한국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
 - *오카다 외상이 적임자로 추천
- 한국대사는 보통 외무성에서 국장이상을 역임한 간부가 취임하지만, 국장경험이 없는 무토대사의 기용은 이례적임
- 무토 대사는 72년에 외무성 입성. 호놀룰루 총영사, 한국 공사를 거쳐, '07.10월부터 쿠웨이트 대사를 맡고 있음